

##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부부의 자녀, 배우자, 자신에 대한 삶의 탐색\*

An Exploratory Study on Perceptions Regarding the Children, Spouses and  
Their Own Lives of International Married Couples in Rural Areas\*

이은하(Eun-Ha Lee)<sup>1)</sup>

권주연(Ju-Youn Kyun)<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s in international married couples perceive the lives of their spouses as well as their own, and the ways in which they perceive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In addition, the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implicit meanings at work in the lives of international married familie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eight international married couples from rural areas and the data were gathered by means of semi-structured interviews. According to the findings, international married couples perceive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in terms of individual-specific maternal roles versus the Korean culturally-specific paternal roles. Secondly, in terms of their spouse's life, husbands relied more on their wives and had high expectations of them. On the other hand, wives had the tendency to pay more attention and place more hope on their children rather than their husbands. Lastly, regarding their own liv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wives tended to maintain the hope and desire for a better life, whereas the husbands were unable to adapt to their reality and tended to look back on the past.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농촌지역(rural areas),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 부모-자녀 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 부부 관계(husband-wife relationship).

---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sup>1)</sup> 경북도립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sup>2)</sup>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시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Ju Youn Kyun, 523, Sunghak Hall,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juyoun1209@hanmail.net

## I. 서 론

무지개는 이미 일곱 가지 색상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빛을 내지만, 이주여성은 그들 한명 한명이 독특한 한 가지의 색상을 내어 함께 조화되어 무지갯빛을 그들의 삶 속에서 발하고 있다.  
(Shin(2009), 「나의 선택, 나의 꿈」에서)

현대사회에서의 가족 구성은 대부분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로, 이러한 가족구성원들 간의 역동은 부부 간, 부모-자녀 간 그리고 부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를 동반한다. 최근 여성 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비율은 35.2% (Statistics Korea, 2010)로 이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으며(Yoon & Lee, 2011), 한국사회의 농촌지역에 국제결혼가정이 급증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은 대부분 5박 6일을 넘지 않는 단시간 안에 맞선부터 결혼식, 합방 등의 결혼과정이 모두 이루어지므로(Lee et al., 2007) 부부가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정보 없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만나 다른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으며(Park & Eun, 2010), 이러한 현상은 이들의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 이주여성들은 대체로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마을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Lee, 2010) 집안에서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까지 많은 인정을 받아(Yoon & Lee, 2010) 자신과 가정, 사회에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 시부모와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서로 다른 문화 차이 등의 갈등을 높은 비율로 경험하고 있으며, 남편들이 이주한 아내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인권침해, 경제활동을 위한 노동 강요 등을 하고 있어서 이주여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고(Lee & Kim, 2011) 심화된 갈등으로 인한 이혼, 가출(Park & Eun, 2010)을 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남편들의 무관심(Kwak, 2010), 미숙한 한국어 실력 등으로 인해 결혼 이주여성들은 자녀 양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Jung, 2008; Lee, 2010; Song, Ji, Cho, & Im, 2008).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는 배우자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잦은 대화를 통한 협의 과정을 거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하며, 부모로서는 각각 동등한 위치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육체적·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다소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수용하는 속도가 늦은 농촌지역(Chung, Goh, & Kyun, 2010)의 국제결혼가정 부부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바이며, 부부들의 개인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은 다소 특수한 결혼 과정과 결혼 이후의 가정환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인해 이들의 삶의 경험, 가족관계 등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족관계 내에서의 부모-자녀, 배우자,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삶의 탐색이 필요하다.

가정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 단위이며, 가족 구성원 상호간에 형성된 가족관계는 이후 그들의 삶의 성장에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998). 부부 간, 부모-자녀 간의 관

계의 질과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에 대한 이해는 현재와 미래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행복과 안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탐색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맞이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으며, 그 사회의 긍정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농촌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는 대부분 낙후된 환경에 처해있는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배우자라는 현상적 의미와 함께 저개발국가 출신의 여성이라는 경제적 의미의 ‘낙후’에 무게가 실려 있으며(Jang, So, Ko, & Lee, 2008),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기보다는 한국의 가족문화와 토착문화에 순응해야 함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Park, Kim, & Park, 2011). 이에 국제결혼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들에 대한 사회로부터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의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 변화를 위한 첫 단계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부부의 부모-자녀, 부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삶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과 관련된 연구들(Choi, Lee, & Moon, 2008; Kim, 2009; Kim, 2010; Kim & Jang, 2009; Park & Moon, 2008; Park & Park, 2011; Song, 2011; Song & Park, 2008; Yang, Choi, & Kang, 2009; Yang & Yon, 2009; Yoon & Lee, 2011)은 대부분 문항을 통한 설문조사나 남편 혹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의 현상이나 문제점 등을 드러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의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이들의 삶을 깊이 있고 진솔하게 탐색하는 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내와 남편 각각을 행위주체자로 보고 그들이 자연스레 엮힌 가족관계 내에서의 부모-자녀, 부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삶의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8가정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이들 부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자녀, 부부,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한다.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부부의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삶의 인식을 그들 개인의 삶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으로부터 탐색하는 것은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며, 그들과의 진정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전문가 및 관련 모든 이들에게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국제결혼가정의 부부, 부모-자녀 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부부의 부모-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신에 대한 삶은 어떠한가? 이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 중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Clandinin & Connelly, 2000; Connelly & Clandinin, 2006)를 연구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일상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함으로써 개인의 경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 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반복하여 재구성하면서 경

험적 사건들을 특정한 방식으로의 구조화 및 해석(Clandinin & Connelly, 2000; Connelly & Clandinin, 1990)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농촌 국제결혼가정 부부의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 및 자신에 대한 삶의 인식을 그들 개인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으로부터의 탐색을 위한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판단하여 적용하였다.

### 1.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제 1저자는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 농촌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소속되어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의 국제결혼가정과 관련한 일을 하였고, 그 가정의 여성들과 친분을 가지기 시작하면

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국제결혼가정 부부’에 대한 주제는 연구자가 국제결혼가정 부부이야기를 계속 들어오면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근거를 찾고자 했던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상북도 농촌지역인 Y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8가정의 아내와 남편으로, 표본추출의 적절성을 충족하기 위해 참여자의 선정을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8가정은 남편의 부모대로부터 내려오는 삶의 터전으로서 논과 밭을 일구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아내도 새벽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다. 이 곳 Y군은 베트남에서 이주한 여성이 다문화 가정의 약

<Table 1> Personal data of participants

		A	B	C	D	E	F	G	H
		husband & wife	husband & wife	husband & wife	husband & wife	husband & wife	husband & wife	husband & wife	husband & wife
Age	Husband	45	53	46	36	43	47	42	52
	Wife	25	30	27	27	38	35	37	47
Occupation	Husband	Fruit farmer	Farmer	Farmer	Farmer	Farmer	Farmer	Farmer	Farmer, store clerk
	Wife	Farmer	Farmer	Store clerk	Farmer	Farmer	Farmer	Factory worker	Farmer
Education	Husband	High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Wife	Middle school graduate	Elementary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Birthplace of wife		Vietnam	Vietnam	Vietnam	Vietnam	Philippines	China	Japan	Japan
A period of residence		3year	5.5year	7year	7year	8.8year	11year	10year	13year
Number of children		1	3	2	2	3	1	2	3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서도 베트남 출신의 아내는 4명이었다. 또한 필리핀 출신 1명, 중국 출신 1명, 일본 출신 2명 총 8명이었으며, 결혼기간은 3년~13년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부명은 가명으로 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자세한 인적사항은 Table 1과 같다.

## 2. 연구절차

### 1) 연구 사전 승인

연구 참여자 선정은 2010년 6월에 Y군청,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리고 국제결혼가정 한글지도사를 통하여 연구에 적절한 가정을 소개받는 것에서 이루어졌다. Y군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본 연구의 제 1저자가 4년째 다문화가정 도우미 교육을 도와오고 있으며, 국제결혼 여성들과도 만남을 자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부분적인 공유된 삶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 장소가 되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한글지도사의 소개로 만난 부부들은 한글지도사와 몇 년간 한글 공부지도 뿐만 아니라 일상에 관한 다양한 상담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소개와 면담을 위한 만남으로의 동행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한 섬세한 윤리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자들에 대한 소개와 연락처,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자발성,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 처리, 면담내용의 녹음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위해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국제결혼가정의 부모와 사전에 약속을 정한 후 직접 방문하여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면담 장소는 그들의 삶의 중심지인 가정, 직장(가게, 식당), 친구 집, 그리고 농사일터 등이었다. 참여자들과의 면담에는 항상 한글지도사가 함께 해주었고 특히 외국인 어머니들과 대화가 어려울 때는 옆에서 쉽게 다시 설명을 도와주었다. 아버지들은 처음엔 대화를 회피하고자 하였으나 한글지도사의 오래된 친분 덕분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과 현장노트 기록을 병행하였다. 심층면담의 시간은 부부 1인 1회 당 약 30분~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1인의 면담 횟수는 총 2~3회로 부족한 참여자 몇 명 이외에는 한 주 간격으로 만나 이야기였다. B, E, F, G 부부는 가정에서 각각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부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1차면담이 이루어진 후 즉시 연구자는 그 내용을 전사하고 느낌과 소감을 기록하였으며, 1차면담에서 수정, 첨가하고자 하는 질문의 경우 2차 혹은 3차면담을 통해 추가 질문하여 부부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1차 만남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A와 C아내는 1차 만남에서 그들 본국에 대한 향수 등으로 처음부터 눈물을 보여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으로만 보내기도 하였다.

###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부부들의 이야기와 연구자와 대

화한 전사 기록과 연구자의 노트 기록 등과 같은 현장텍스트(field text)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이야기들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함께 묶고 그러한 이야기들의 줄거리들을 엮어서 연구텍스트(research text)를 구성하였으며, 연구 텍스트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내러티브 텍스트)하는 형식으로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들의 경험을 맥락과 분리하여 분절시키지 않고 내러티브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부모들과 연구자들의 이해와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러티브 자료와 분석한 자료를 두 명의 연구자들이 수차례 돌아가며 읽고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시간이 허락된 연구 참여자에게는 그 내용을 이야기처럼 들려주면서 내용을 검토 받았으며 나머지 참여자들은 면담에 늘 함께 하고 그들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한글지도사로부터 내용을 확인받았다. 자료를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이자 질적 연구 경험자 2인에게도 검토를 받음으로써 해석의 적절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자녀에 대한 탐색 : 보편적이면서 개인 특수적인 어머니 역할 VS 한국의 토착적인 아버지 역할

1) 보편적이면서 개인 특수적인 어머니 역할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부모들의 주

요 걱정거리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며, 모든 엄마들은 ‘충분히 좋은 엄마(good enough mother)’ 되기를 소망한다. 충분히 좋은 엄마란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주는 사람으로(Winnicott, 1980), 본 연구 참여자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노력하는 모든 어머니의 보편적인 역할과 외국인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개인 특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G아내는 “우리 아이 키우는 것 다르게는 생각 안 해요. 잘 키우는 걸 원해요. 다른거는 없는데 사람들이 (외국인 엄마) 바라보는게 아마 좀 다르게 보아요(2010. 8. 18. G아내 이야기)”라고 하면서 주류인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엄마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당한 엄마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여 자주 읽고 있었으며, 다른 어머니들도 외국인인 사실 자체가 자녀에게 불이익이 되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보충해줄 엄마 역할을 찾고 있었다.

엄마가 한 마디 한 것이 애들한테 영향되는 것은 아니나, 일본 엄마라 걱정돼요. 아이들 자랄 때 ‘잘 하네’ 한 말이 영향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아이들 키울 때는 텔레비전 안 봤어요. TV는 기계잡아요. 아이들하고 기계하고 가지는 시간은 못하게 하고 인간하고 가지도록 했어요. ...중략... 드라마가 너무 보고 싶을 땐 아이들이 자기를 기다렸다가 혼자서 봤어요.

(2010. 8. 23. H아내 이야기)

H아내는 어느 날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TV 앞에 앉아 드라마 보고 있는 모순된 태도를 발견하고는 그 이후로 아이들이 숙제를 하거나 책을 볼 땐 TV시청을 극도로 자제를 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TV 시청보다

는 그 시간에 엄마와 삼형제가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한 양육 및 교육을 그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바르게 실천하고자 노력하면서 좋은 엄마 되는 길을 충실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 공부와 학습에 있어서 일반적인 한국 부모와 같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부모들은 모두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몇 명의 어머니들은 “공부 1등하면 좋겠어요(2010. 7. 12. F아내 이야기)”, “대학에 가는 것 좋아요, 바래요”(2010. 8. 18. G아내 이야기)라고 하면서 학습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도 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는 학습지 2종류를 지원 해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지 2~3개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학습에 대한 어머니들의 관심과 행동은 여타 한국 어머니들의 보편적인 역할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 참여자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다소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보였다. D어머니의 경우, 어느 날 만 2세인 아들이 어머니 생각에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니 아니라고 짜증을 내고 ‘우유’를 주어도 컵을 던져 자신을 화나게 했으나, 할머니가 ‘주스’ 한 컵을 건네주니 만족해하며 할머니에게 가는 것을 보고 아이가 자기를 거부한다는 생각에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 결국 신체적 학대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아이가 엄마에게 ‘주스를 마시고 싶다’라고 했으나 엄마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알아들음으로써 일어난 상황이었다. D어머니는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였으며, 만 2세인 아이의 언어표현력 또한 완전히 정

확하지 않아 일어난 에피소드였다. 면담 시 점차 첫째 아이와의 충돌은 조금 나아졌지만 둘째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의사소통에서 교차적 상호교류(Berne, 1961)의 유형으로 사례에서처럼 모-자간 대화가 빚나가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고 아이로부터 엄마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일반적인 엄마의 마음과는 달리 언어 사용의 미숙함과 엄마의 마음을 자녀가 받아주지 못하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은 결국 자녀를 통제하고 심리적인 거부로 이어지게 하였다.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 사용 문제는 자녀발달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으로 이어졌다.

연구자 : 아이 키우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D아내 : 많이 걱정해요. 저는 한국말 잘 몰라요, ○○이 어떻게 키워요? 제가 한국말 몰라 ○○이 엄마 미워 미워해요. 다 걱정해요.

연구자 : 도우미 선생님에게 한글 배우고 계시잖아요.

D아내 : 네 ○○이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한국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한테 어떻게 말해 말 안돼요(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잘 몰라요 많이 속상해요

연구자 : 그래요. 한국어 때문에 많이 속상한가 봐요.

D아내 : 네, 저 한국 엄마보다 제가 좀 잘 못해서 많이 걱정이에요.

연구자 : 무엇이 가장 걱정되세요?

D아내 : 엄마 한국사람 아니라 한국말 못하고, 공부 못하고, 친구들 못 지내는 거.

(2010. 7. 19. D아내 이야기)

어머니들이 가장 속상해 하고 가슴 아파하며 심지어 죄의식까지 느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자녀에게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해준다는 것이었다. D아내는 특히, 한국에 온지 7년이 넘었으나 자신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

하지 못하였고 한국어에도 능통하지 못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매우 불안해하였다. 즉,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들은 보편적으로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외국 출신으로서의 부족한 엄마 역할 및 그로 인한 불안과 죄책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 2) 농촌사회의 토착적인 아버지 역할

본 연구의 참여자인 남편들은 대부분 부모대로부터 논, 밭, 과수원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바쁜 철에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즉, 아버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양육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다소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수용하는 속도가 늦은 한국 농촌지역(Chung, Goh, & Kyun, 2010)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아버지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어... 이 산골에서는 아이를 고민할 시간도 없고, 일하느라고 바쁘게 무슨 아이한테 신경을 써요? 뭐 아직... 뭐 어떻게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은 바빠서 못 가졌어요. 미안은 하지.

(2010. 8. 12. E남편 이야기)

E남편은 보통 새벽 5시면 일하러 나가 밤 10시 넘어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E아내에게 거듭 부탁하여 허락을 받고 연구자와 한글지도사가 함께 밤 10시에 좁고 위험한 산길을 운전하여 방문한 사람이다. 주로 E남편은 아이들이 잠자고 있을 때 집을 나가고 잠들었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긴 하였으나 바깥일의 바쁨으로 인해 자녀와의 대화 시간도 거의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자녀의 언어발달, 정서발달, 행동문제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가 학령기가 되

었을 때 또래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특히 걱정을 하고 있었다. F남편의 경우, ADHD 성향을 가진 자녀의 이러한 행동이 엄마의 바람직하지 않은 훈육에 기인한다고 믿었으며, 이 때문에 아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행동이 그 뭐더라. 한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를 (엄마가) 너무 욱박지르고, 타일러도 되는데 성질내고 화내고 그러니깐 애가 저래 저렇게 설쳐대는 행동하지.

(2010. 7. 13. F남편 이야기)

이와 같이 아버지들은 스스로 외국인 아내를 둔 가정을 핸디캡으로 인식하면서 자녀가 국제결혼가정에서 성장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이고 불안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핸디캡과 자녀 발달의 어려움을 외국인이나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남편들은 아내의 출신 국가의 언어를 부인할 뿐 아니라 한국인의 혈연을 전제로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다. 도시거주 남성보다 농촌거주 남성이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울 의향이 없는 비율이 높고, 후진국 출신의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 남성이 그러한 태도를 더 견지하고 있음은 Ahn(2011)의 연구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틀리다는 것(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나도 그 나라 가봤지만 사실 못살지요..... 엄마가 옆에서 아이들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베트남 말이 무의식중에 나오고, 친구들과하고 전화로 베트남 말하고 그게 문제라. ○○이 태어났을 땐 와이프가 베트남어로 말해 우리가 처음엔 (애하고 엄마)때났어요.

(2010. 8. 24. C남편 이야기)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집에서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슬려요. 여기는 우리나라지 일본이 아니니까.  
(2010. 8. 9. F남편 이야기)

어린 자녀인 영아를 향한 엄마의 언어는 본능적이다. 그런데 남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한국이며 자녀가 한국인임을 강조하여 아내의 모국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사대적 시각을 가짐으로 인해 자신의 아내가 지닌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과 남편의 이러한 태도는 모자간 애착형성을 어렵게 만들며, 심지어 자녀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소인을 만들 수 있음이 염려된다.

## 2. 배우자에 대한 탐색 : 남편에게 바라지 않는 삶 VS 가정을 위하여 아내에게 기대는 삶

### 1) 남편에게 바라지 않는 삶

부부란 비혈연적인 남자와 여자라는 서로 다른 성이 결합되어 서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상호작용이 있는 역동적인 관계이다(Yu, 1983). 이는 부부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맺게 된 가장 밀접하고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 여성의 인간관계에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남편이다(Kim, 2009).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 부부들은 이와는 달랐으며, 이러한 역할에서 다소 떨어져 있었다.

○○아빠 절대 베트남 생각 안해요(친정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 섭섭해요. 많이. 그러나 ○○있어 섭섭 안해요(섭섭해 하지 않기로 생각). 나는 ○○이 있어서 좋아요.

(2010. 7. 22. B아내 이야기)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B남편은 아내의 친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었다. 아내는 처음 이러한 남편의 행동에 대해 서운해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부부관계 또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인 압박 및 시부모와의 갈등 등을 겪고 있었으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남편이 돈을 벌지 않는 가정에서는 아내가 식당일로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시부모와의 갈등을 친정에 전화하여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을 염려하여 그렇게 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 일에도 아내가 나서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야지. 애 아빠한테 다른 원하는 것 못해요. 시부모님께도 바라는 것 없어요. 음... 사실 사실은 없었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왔었어요. 친구하고 이야기 하지만 마지막엔 없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나중엔 내가 결정해요. 친정에도 내가 말을 못해요.

(2010. 7. 19. D아내 이야기)

그래서일까 아마도 아내들은 그들 스스로가 국제결혼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남편이나 시댁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혼자 해결해 나가는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자녀를 의지하며 살아온 듯하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의사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머리가 똑똑해요. 의사 선생님 바라고 있어요(의사가 되는 날을 기다리고 산다). 내가 돈 벌어 공부해요(돈 벌어 아이 공부 시킨다).

(2010. 8. 12. C아내 이야기)

C아내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남편보다 자녀가 자신의 삶에 등대가 되고 아이의 삶과 성공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채워 나가고자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가 공부를 통해 성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바람이라는 Shin(2011)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한국어 학습과 학교 공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보편적인 어머니들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국인 출신 어머니들은 자신들로 인하여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민하였으며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남편이 함께 참여할 때 그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무관심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삶에 등대라고 생각하는 자식의 교육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였다. 교육문제에 대하여 남편과 이야기하고자 하면 남편은 귀찮아하며 “몰라, 몰라, 피곤해.”(2010. 8. 3. F아내 이야기)라고 반응을 해도 남편의 개입과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제가 할 역할은 해야 하고, 아빠의 역할은 아빠가 하면서 함께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2010. 8. 16. H아내 이야기)라고 하는 등 자녀교육에 대한 몫을 남편이 담당해주기를 바랐다.

2) 가정을 위하여 아내에게 기대는 삶

본 연구 참여자인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가 엄마역할, 며느리 역할, 그리고 집안 살림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 등을 잘 해내길 바라였고, 특히 자신들의 아내가 농사일을 하는 것과 농사일이 한가할 때 인근의 공장이나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와이프는 외국에서 왔는데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지가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식당에 다녀요. 3년 됐어요. 저는 뭐 집에

일을 책임져야 하니깐 농사일로 그냥 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0. 8. 10. C남편 이야기)

(아내가)일을 잘해요. 내보다 힘이 세어 논일을 많이 해요. 우리 농사가 많은데 좋지요. 몸이 약해 힘든 것보다 좋지요.

(2010. 7. 13. F남편 이야기)

남편 대부분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농사일을 하는 아내의 역할은 기본이며, 농사일이 한가할 때는 가정 경제 분담을 위하여 다른 일을 찾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F 남편은 자신보다 아내가 힘이 세어 농사일을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C남편 또한 “농사일은 한국 여자보다 더 잘해요.(2010. 8. 17)” 라며 외국인 아내가 일을 더 잘해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한글지도사 말에 의하면 C남편의 경우, 술을 즐겨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몇 번 일으켰는데 이럴 때면 언제나 아내가 식당일로 조금씩 벌어놓은 돈으로 사고처리를 했다고 하였다. H남편은 “일본여자들은 지(자기) 자식을 최고로 생각해요. 내가 애들 신경 안써도 지(아이들) 엄마가 다 알아서 해요.(2010. 8. 18)”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엄마의 역할을 과도하게 인정하여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아내에게 일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가 있으므로 가정에 지원되는 물질적·심리적인 지지체의 도움을 더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 결혼 해온 신부들 아무 것도 몰라 힘들어요. 도와주는 사람(군청, 지원센터 등)이나 선생님들(도우미 등)이 와서 이런저런 것 물어보고 뭐 어려운 점과 힘든 것 알아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2010. 7. 20. A남편 이야기)

본 연구 참여자인 아내들의 삶이 독립적이고 능동적이며 희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남편들의 삶은 가족과 아내로부터 개별화되지 못하며 특히, 아내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현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독립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갈등에 직면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하나(Lee, 2010), 연구 참여자인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많이 의존하고 육체적·심리적·경제적으로 기대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아내에게 짐지워진 역할로 인해 아내의 떠나감(家出)에 대한 불안도 가지고 있었다.

요즘 ○○엄마 친구 만나러 읍내 자주 나가여. 근데 늦게 오고 우리 엄마(시아머니) 야단해도 난 말 못해여. 내가 뭐라고 하면 집 나가니까 참 아야지. 벌써 두 번 집 나갔는데 찾아 왔어요. (중략) 어찌든 아가 둘인데...

(2010. 8. 09. D남편 이야기)

D남편은 아내의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는 들지 않으나, 가출을 할 것 같아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물론 아내들의 극단적 선택인 ‘가출’은 대부분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남편들이 경제적 측면, 농사일 분담, 시부모 공양 및 자녀에 대한 양육을 모두 아내의 몫으로 생각하며, 아내에 대한 존중이나 관심보다는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만을 주시킴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해석된다. 어찌든 결과적으로 남편들은 아내들의 가출이 반복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아내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나타났다.

### 3. 자신에 대한 탐색 : 현실에서 미래 소망을 향해 노력하는 아내 VS 현실의 부적응과 과거를 회상하는 남편

1) 현실에서 미래 소망을 향해 노력하는 아내  
대부분의 아내들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편

에게 기대한 만족을 얻지 못해도 아이들의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현실에서의 노력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과 가정 이 나에게 행복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 있어 작은 행복 있어요.”(2010. 7. 22)라고 했던 B아내. 아이들과 자신을 위해 다양한 사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생활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지혜를 가진 여성임을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의 이야기에 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집 돈 많이 없어요. 그러나 ○○(첫째), ○○(둘째) 있어요. 나는 ○○, ○○엄마이요. ...중략... 우리 아이들 있어 여기 일해요.

(2010. 8. 19. C아내 이야기)

대부분의 아내들은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엄마가 되기를 소망하였다. C아내가 두 아이의 미래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듯이, H아내는 자녀와 자주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여기면서 주어진 현실과 미래 소망을 향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엄마로서의 바람직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본인의 개인적인 꿈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국제결혼 선배 가정 언니들(과) 모여 아이(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서로) 어려운 이야기 나누다. ...중략... 동네 할머니, 아주머니에게 물어요. 잘 가르쳐 주어요. 옆집 사람들에게 빨리 물어봐요. ...중략... 센터에서 사람들 만나고, 수녀님(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소개하면 다른 사람 만나 도움될 거 받아요.

(2010. 8. 25. G아내 이야기)

아내들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길 기대하였다. 일본인 두 아내는 외국어 강사로의 꿈을 가지고 한국에서 의미있는 일을 소망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B아내는 “요리 배워 해요. 좋아요. 잡채 잘하면요(잘해요). 빵 (잘) 만들어해요. 한국의 최고(요리전문가) 하는 것 같아요(하고 싶어요).(2010. 7. 15)”라면서 요리사를 꿈꾸었으며, 몇 명의 아내들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일본어 가르치는 선생님 하고 싶어요. 한국에 온지 10년 넘어요. 우리나라에 시집오는 일본 나 같은 사람 한국어 가르쳐주고 싶어요.  
(2010. 8. 10. G아내 이야기)

G아내와 같이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여성들의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삶은 한국사회 농촌지역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사라진 농촌의 문화를 살리고 재구축하는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볼 필요(Yeom, 2011)가 있다. 농촌총각 35%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는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행복한 삶은 농촌의 미래와 더 나아가 국가의 안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현실의 부적응과 과거를 회상하는 남편

대부분의 아내들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남편들은 과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회상하며, 현재 자신의 삶과의 비교를 통해 피해의식을 느끼고, 본인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자식은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도 그 때는 도시에서 일하고 좋았는데. 나도

그때는 얼굴에 얼룩도 없었고, 나도 좋아하는 사람 있었고 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내가 촌에 들어와 농사하니까 촌에 시집올 사람 아무도 없었어.

(2010. 8. 10. C남편 이야기)

나는 이제 별 재미없지요. 여기 시골서 뭘 바랄 것 있나요. 그냥 우리 아이가 나처럼 안 살고 도시에 나가 살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2010. 7. 19. D남편 이야기)

국내에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국제결혼을 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국제결혼 동기처럼 C남편은 외국인 아내와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무능함과 연결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삶이 만족보다는 고달픔을, 미래의 소망보다는 한 때 과거의 모습에 치중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아내들은 현재를 중요시하며 미래에 소망을 두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남편들은 외국인 아내와 생활하고 있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면서 한 때 좋았던 자신의 과거 시절로의 회상을 추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D남편은 본 연구 참여자 중 36세로 가장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포기하는 듯 하였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누구는 외모, 누구는 성장환경, 누구는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감추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인 남편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 아내와 남편, 이들은 모두 제각기 고된 삶을 살고 있었으나 앞으로 자신이 직면할 미래의 삶에 대한 자세는 사뭇 달랐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 국제결혼가정 부부의 자녀, 배우자 및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개인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으로부터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국의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부모역할과 동시에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수한 맥락에서의 역할의 의미로, 자녀에게 표현되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이에게 심하게 화내고 통제하며 거부하는 양육의 형태를 띠었으나, 이는 주로 모-자간 언어적 상호교류의 갈등에 기인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어머니의 개인적 성향이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양육태도일 수도 있으나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있었다. 원하는 피드백을 받지 못한 아이는 속상해하며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어머니는 아이가 할머니와 같은 주변인을 따르거나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부정적인 언어적, 신체적 반응을 나타내어 결국 자녀를 통제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판단하면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타문화 간 결혼에서 가장 문제인 의사소통(Menj var & Salcido, 2002)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상호교류 분석심리학자 에릭버ن(Eric Berne)은 인간의 상호교류(transactions)에는 세 종류 즉, 보완적 상호교류, 교차적 상호교류, 잠재적 상호교류가 있다고 하였으며(Berne, 1961), 영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호 간 대화가 빚

나가는 특징으로 인간관계에 문제를 생기게 하는 교차적 상호교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ee, Lee, & Kang, 2008).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 참여자들이나 이들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자관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재기술 및 교육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한편,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농사일로 자녀 양육에 무관심함을 보였으며, 국제결혼가정이라는 환경적,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한 자녀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를 아내에게 책임전가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한국어 잘 할 수 있도록 모의 모국어 사용을 구속하는 행위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아이를 분리 시킴으로써 아이와 엄마에게 외상(trauma) 경험의 가능성을 높였다. 영아에게 엄마의 품을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 ‘갱겨루 케어’ 실험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MBC, 2011). 영아기 외상 경험의 장기적인 영향은 후기 발달 단계에서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성, 의존 욕구 조절, 개인 간 의사소통에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O'Connor, 2000). 따라서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부모교육과 가족교육 계획 등에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며,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및 국제결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먼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이주 여성이 자신의 모국어로 자장가, 속삭임, 노래 등을 통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애정표현 및 정서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가정환경이 마련되어야겠다.

둘째, 아내들은 보수적 성향이 만연한 한국 농촌사회의 맥락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을 느끼고 또한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과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음을 Lee(2006)와 Jung(2007) 연구에서도 밝힌 바 있다. 반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좋은 며느리와 엄마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아내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여러 선행연구(Choi, Kim, Chung, & Yoo, 2004; Hwang, 2008; Lee, 2010; Park, 2006; Yoon & Lee, 2010)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주된 시각은 시부모에게 봉양 잘하고 남편 내조를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며, 논·밭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인 남편들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긍정적인 부부관계가 필수적이다(Ahn, 2006; Kim, 20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또한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행복의 우선순위가 부부간 상호작용이라고 밝힌 연구(Yang, 2007)에서와 같이 친밀한 부부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선행되어 오고 있으나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함을 밝힌 바(Seol, Lee, & Jo, 2006), 각 가정의 형편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특징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하고 진단하여 이들 가정에 알맞은 ‘맞춤형’의 교육, 중재, 상담 지원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편들은 과거 자신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실에서의 삶을 고달파 하면서 불만이 되풀이되는 것과는 달리, 아내들은 자신의 행복과 미래의 꿈을 위하여 보다 긍정적, 능동적, 진취적,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생활에 임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

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출신국 어머니들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종교 단체, 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다가가는 등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있음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들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농촌 마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하며, 개인, 가족, 지역사회, 정부 차원의 다양한 관심과 이해에서 비롯된 바람직한 통합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주자의 정착을 위한 중도적 수준의 임파워먼트 접근으로 지역사회개발과 네트워크를 통한 옹호활동의 일환(Nash, Wong, & Trikin, 2006)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국제결혼가정과 지역사회의 양방향적인 참여와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아내들은 그들의 미래 계획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며, 남편들은 아내를 진정한 삶의 동반자로 협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의 견지에서 연구 참여자와의 적은 만남의 횟수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에 충분하고 진솔한 그들의 삶의 이야기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한 한계일 것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기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해보며, 이와 함께 출신국이 서로 다른 이주여성들 간 삶의 경험 차이를 밝히는 연구도 흥미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여성인 연구자들에게 국제결혼가정 여성의 인권적인 삶이 먼저 비추어져 남편들에 대한 글쓰기가 다소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졌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소 적은 수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농

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의 모-자관계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의 상호교류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 태도로 이어진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모-자관계 회복과 보완적이고 잠재적인 상호교류를 위한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통합한 놀이중재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체계의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둔다.

### 참 고 문 헌

- An, H. J. (2006). Home violence experience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a korea ma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ose women's reaction to the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hilla University, Busan, Korea.
- Ahn, H. S. (2011). Relationships among marital equity, communication, conflict-coping styl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korean coup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of Venture & Information, Seoul, Korea.
- Berne, E. (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New York : Grove Press.
- Choi, H., Kim, S. K., Chung, K. S., & Yoo, M. K. (2004). *Minority in korea : past and future*. Hanul.
- Choi, Y. S., Lee, S. H., & Moon, M. K.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immigrant women by marriage living in rural area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5*(3), 225-248.
- Chung, K. S., Goh, E. K., & Kyun, J. Y. (2010). Role experiences of two elder sisters who have different risk factors from the rural mixed-age preschool cla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5), 79-99.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 Jossey-Bass.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_\_\_\_\_ (2006). Narrative inquiry. In J. L. Green, G. Camilli, & P. B. Elmore (Eds.), *Handbook of complementary methods in education Research* (pp. 477-487). New Jersey : Erlbaum.
- Hwang, Y. J. (2008). Female married immigrants inflow into rural areas and their adjustment experien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M. Y., So, K. C., Ko, E. M., & Lee, S. R. (2008). The study, efficient support policies on Korean education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immigrants : Focusing on the analyses of the support programs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immigrants in each local governmental institution in jeonbuk.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44*, 111-138.

- Jung, K. S. (20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migration and their adjustment of life in Korea. *Journal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20*, 69-104.
- Jung, S. H. (2007). An exploitative study on immigrant women's l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Chungnam, Korea.
- Kim, H. G. (2009). Factors impacting on the cross-border married women's life adaptation in rural area, gyungbook province.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19*(1), 83-120.
- Kim, H. S. (2010). A study on the marital adjustment amo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2), 135-159.
- Kim, K. S., & Jang, Y. J. (2009). A study on the marriage satisfaction of Korean husbands in inter-ethnic marriage statu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3*(1), 223-248.
- Kim, M. K. (2009). Ethnographic research on the "married life" of international married 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179-211.
- Kwak, J. S. (2010). The study in difficulties of nurturing children for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k-Mi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E. H. (2010). Parents-children relationships on child custody in multicultural family : based on agricultural region in gyeongbuk.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4*(3), 109-129.
- Lee, H. H. (2010).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3), 219-245.
- Lee, K. H., & Kim, K. W. (2011). Relationship of social-cultural adaptation, emotion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married female immigrants.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5*(2), 121-131.
- Lee, M. S. (2010). Influences of couple's conflict on the self-differentiation of husband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H. et al. (2007). *Feminism on the scene of globalization age*. Ehwa Womans University Press.
- Lee, T. O. (2006). A study on the family and the social network for the immigrated women : the focus about the women in Yeongwa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University, Gwang-Ju, Korea.
- Lee, W. Y., Lee, T. Y., & Kang, J. W. (2008). *Parent education*. Hakjisa.
- MBC (2011). MBC special (August 19, television broadcasting).
- Menj var, C., & Salcido, O. (2002). Immigran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common experiences in different countries. *Gender & Society, 16*(6), 898-920.
-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998). *Kindergarten curriculum explanation books*.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 Nash, M., Wong, J., & Trikin, A. (2006). Civic

- and social integration : A new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immigrants,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ternational Social Work*, 49(3), 354-363.
- O'Connor, K. J. (2000). *The play therapy primer (2nd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Park, C. K. (2007).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of rural lif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29(3), 67-84.
- Park, E. M., Kim, S. S., & Park, S. H. (2011). The experiences of child-rearing by Filipino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nd korean women married to korean men : A focus on the experiences of rural women.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8(4), 147-167.
- Park, H. M., & Moon, S. T. (2008).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female immigrants in rural area for social adjustment educ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0(2), 69-91.
- Park, M. S., & Park, J. K. (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korean spoken capability on the family l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women.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4(1), 19-41.
- Park, S. H. (2004).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onmisa.
- Park, T. Y., & Eun, S. K. (2010). A case study on family therapy of multicultural family : A couple therapy for korean husband and japanese wif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0, 167-196.
- Park, Y. K. (1987). Effect of marital happiness on children's person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cheier, M. F., Weintraub, J. K., & Carver, C. S. (1986). Coping with stress :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ts and pessim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57-1264.
- Seol, D. H., Lee, H. K., & Jo, S. N. (2006). *A study on the state of marriage immigrants' family and mid-to-long term support plan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Shin, E. J. (2009). *My choice, my dream*. Jungin.
- Shin, H. S. (2011). Study on nurturing experiences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Song, H. R. (2011). The influence of husbands' sex role stereotype,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the acceptance of their wives' culture on their wives' acculturation and marital and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family : Daegu and gyeongbuk a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7(2), 219-239.
- Song, M. K., Ji, S. H., Cho, E. K., & Im, Y. S. (2008). A study on the parental experience of a foreign mother in a multicultural famil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 497-517.
- Song, M. Y., & Park, K. H. (2008). The decision factor on marriage satisfaction of a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in rural

- communitie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6, 53-70.
- Statistics Korea. (2010). *2010 Statistics yearbook*
- Winnicott, D. W. (1980). *The maturational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 Yang, S. M. (2007). The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on happiness in rural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17(2), 1-24.
- Yang, S. M., Choi, K. H., & Kang, K. H. (2009). Aspects of the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a Korean rural area and th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resulting from th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16(4), 713-742.
- Yang, S. M., & Yon, M. H. (2009). A study on the enculturative stressors, stress respons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rural area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4), 943-966.
- Yeom, J. S. (2011). One educator's teaching practice aimed at the constructing a caring community in an early childhood multicultural classroom.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5), 87-108.
- Yoon, M. S., & Lee, H. K. (201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mother-in laws with foreign-daughter-in-laws in rural area. *The Korean Rural Sociological Society*, 20(2), 191-232.
- \_\_\_\_\_ (2011). A study on the foreign mothers' adaptation through parenthood experiences in rural a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2, 103-135.
- Yu, Y. J. (1983). *Relationships of family*. Kyomunsa.

2012년 2월 26일 투고, 2012년 5월 13일 수정  
2012년 5월 31일 채택